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정보

대학명	청도이공대학교 친더오대학	기숙사비	6000위안/한 학기
파견지역	칭더오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분할납부()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2016.09.05.~2017.01.11. 2017.03.03.~2017.07.05	기타비용	

▣ 파견자 정보

성명	OOO	학과	OOO
성별	여	학년	4학년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7. 07. 20.

파견자 : (서명)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 교육과정, 수업지도 방식, 지도교수, 수업과제 등 수업관련 세부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레벨 테스트를 통해 초급 a, b, 중급 a, b로 반이 나뉩니다. 초급 a반과 b반은 각각 3반으로 나뉘어 있는데 b반 같은 경우는 모두 똑같은 수준의 수업이지만, a반은 3개의 반이 각자 다른 수준입니다. 초급 b반의 경우에는 hsk4급 정도의 수준이고, 중급 a반의 경우에는 hsk5급 정도의 수준입니다. 수업은 초급의 경우 보야, 코위, 텡리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중급의 경우에는 작문 수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업은 피피티를 통해 진행되며, 대부분의 학생들은 피피티를 카메라로 찍어 따로 복습합니다. 보야는 단원마다 받아쓰기 시험을 보고, 초급의 경우 5과가 끝날 때마다 단원고사를 보고, 중급의 경우에는 4과가 끝날 때마다 단원고사를 봅니다. 단원고사의 성적은 모두 교환학생 성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봐야 합니다. 보야 수업의 단원고사와 기말고사의 경우 본문 내용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으니 교과서 안의 단어와 문법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다. 기말고사의 경우 초급은 hsk4급 형식으로 출제되고, 중급은 hsk5급 형식으로 출제됩니다. 코위 수업의 기말고사 시험은 양이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중급의 경우 보야보다 코위와 텡리 교과서의 단어가 더 어렵기 때문에 받아쓰기 시험이 없더라도 따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과제는 보통 한국 대학교의 과제에 비해 훨씬 수월한 편이라 크게 부담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과목 선생님들마다 수업 방식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두 친절하신 편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마다 학생들의 국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분위기 역시 반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반 분위기에 빨리 적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행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물이 안 좋거나 사정이 생겨 수업에 부득이하게 불참할 시에는 담임선생님께 미리 연락해 칭지아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칭지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중강 전에 미리 각 수업의 출석률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청도의 기후는 서울의 기후와 비슷합니다. 다만 바람은 상상이상으로 많이 불어서 겨울에 많이 건조한 편입니다. 여름에도 저녁에는 바람이 조금씩 불기 때문에 겉옷을 챙겨 다니는 편이 좋습니다.

겨울에는 코트를 입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패딩만 입고 다닙니다.

청도이공대학교는 시내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주 놀러 다니기에는 힘듭니다. 청도 관광지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 유학 생활 중에 꼭 다 둘러보는 편을 추천합니다. 버스 타고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몸도 지치기 때문에 4명 정도 함께 모여 택시를 예약해서 가는 걸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생활용품은 학교 정문 슈퍼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가장 큰 마트는 짜짜위엔으로 따베이취에 위치해있습니다. 중국은행 카드를 만들어 오지 않았다면 따베이취에 있는 공상은행에서 만드는 걸 추천합니다. 중국 카드가 있어야 타오바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을 한 학기만 할 경우 중국에 있는 중국은행에서 카드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학교 근처 중국은행에서는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공상은행을 이용해야 합니다. 중국은행은 학교 가까이 있는 시부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 안에는 중국은행 atm기계가 없습니다. 시부전에는 kfc 근처에 한인 마트와 수원갈비라는 고깃집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청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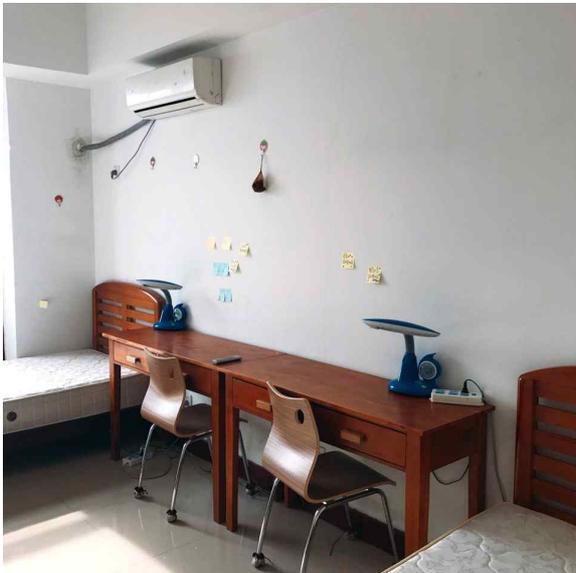
한식집이 많은 편이라 적응하기 비교적 수월할 것입니다. 짜아르지여우디엔 근처에도 한식당이 많습니다. 학교 후문에도 김본가와 다른 한식당이 있습니다. 중국의 버스는 냉.난방이 되지 않아 버스로 이동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학생들이 함께 모여 택시를 이용하는 편을 추천합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1일 40위안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p>밤 10시 이후에는 기숙사 문이 닫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쪽문을 이용해야 합니다. 쪽문으로 출입할 때에는 4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지면 쪽문도 잠기기 때문에 파란색 카드를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파란색 카드 역시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p>		
주위사항	<p>방 검사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실시합니다. 학생들은 수업중이기 때문에 기숙사 관리 아주머니들이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와서 자유롭게 검사하십니다. 전기장판, 냄비 등은 미리 숨겨놓아야 합니다.</p>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제가 사용한 방은 2인 1실로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모든 방은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룸메와 의논 후 편하게 이용하면 됩니다. 층마다 옷장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간이 책꽂이를 따로 구입하기도 합니다. 보통 타오바오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격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충망이 없기 때문에 여름에 문을 열면 벌레가 많이 들어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에어컨(히터), 온수기, 드라이기를 동시에 사용하면 정전이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온수기는 항상 틀어놓고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드라이기를 사용하지 않고,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는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게 편리합니다. 또한 예고 없이 단수가 되는 경우가 매우 잦기 때문에 주인해야 합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방음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복도에서 방 안의 대화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수압이 약하거나 물이 새거나 침대가 삐걱거리는 방이 있는데 그럴 경우 미리 관리인 아주머니께 말해서 고치셔야 합니다. 보통 방 안에 있는 정수기는 사용하지 않고 물을 사서 먹습니다. 냉장고 없이 여름을 절대 보낼 수 없으니 냉장고는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면 얇은 전기장판을 미리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관리인 아주머니께 걸린다면 뺏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14층에 공용 전자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햇반 같은 즉석 식품은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규정상 커피포트 사용도 금지되어 있지만 다들 컵라면을 먹기 위해 사용합니다. 학교 정문 슈퍼에는 옥개장, 김치라면, 불닭볶음면을 팝니다. 타오바오에서 작은 전기 냄비를 구입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됩니다.



룸메랑만 잘 맞으면 숙소 생활에 있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간혹 외국인 룸메와 생활하는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문화나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 친구들끼리 생활하는 경우에도 이해와 배려는 필수입니다. 타지에서 인롭게 공부하는 학생들끼리 서로 위해주고 아껴준다면 더 나은 유학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도서관은 학교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서관 출입 시에는 도서관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인 친구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숙사 방 혹은 유학생 기숙사 1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출입할 상황이 적습니다.



왼쪽은 조금 b반 때의 강의실이고 오른쪽은 중급 a반 때의 강의실입니다. 조금 b반은 세 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한 반으로 이루어진 중급 a반의 강의실에 비해 협소합니다. 중급 a반은 강의실의 크기는 넓지만 학생이 너무 많아 자리가 부족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러시아,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헬스장 건물을 새로 짓고 이전하면서 크기도 넓어지고 기구도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헬스장은 주로 남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여학생들이 쓸 수 있는 기구도 많이 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회원카드를 만들어서 이용해야 합니다. 전에는 4달에 200위안이었는데 가격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에어컨은 무척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동해주진 않습니다.

교환학생 파견 후기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후 느낀점 혹은 소감
2. 수업 외 활동 내용(여행, 교내 외 각종 활동했던 경험)
3.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의견 등

저는 전공이 영어중문이 아니라 제가 유학생할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복수전공을 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교환학생 준비를 하게 되었고, 중국어는 학원 한 달 다니면서 급하게 배운 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갈 당시에는 우리 학교에서 청도이공대로 가는 학생이 저 하나뿐이라서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중국어도 못하는 제가 아무런 정보도 없이 홀로 떠난 유학생할은 역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았고, 환경도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같이 유학하는 친구들이 다들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어서 인지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중국어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점도 좋았지만, 한국에서 겪지 못할 경험들을 배운 게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성격이 활발한 편이어서 나서서 말하는 데에 부담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국에서 중국인들과 대화하려니 자신감 없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학원 다니면서 중국어를 배웠다면 이런 제 부족한 점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더 많은 중국인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버디 프로그램만으로는 중국인 친구를 사귀기에 충분하지 않았기에 중국인 친구를 구하는 벽보를 직접 만들어 친구들을 사귀기도 했습니다. 중국인 친구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음식에도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워서 초반에 적응하지 못했던 저는 중강 후 돌아갈 때 살까지 썩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 중 또 다른 좋았던 점은 중국 내 여행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국내 여행을 하게 되는 거라서 비자를 따로 발급 받을 필요도 없고, 여행 기간 중에는 학교에서도 창지아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여행 다니기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독립성이 부족했던 저였는데 직접 여행을 다니면서 제가 중국어를 얼마나 배웠는지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성도 많이 기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랑도 이곳저곳 함께 놀러 다니면서 유대감도 더 깊어지고 사이도 더 돈독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수업은 12시면 모두 끝이 나기 때문에 자유시간이 많아 좋았습니다. 그 시간동안 hsk 시험 준비도 하고 학교 숙제도 하고 중국인 친구를 만나기도 하며 중국어 실력을 향상 시키는 데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중국에서는 시간이 많으니 운동을 하며 체력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매일 저녁 교내에 있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기도 했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교내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여 배드민턴을 치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농구를 좋아한다 하여 종종 함께 농구를 하며 놀기도 했습니다. 신체를 단련하고 나니 집중도 더 잘되어 공부의 효율성도 더 높아지는 듯했습니다.

저는 유학을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꼭 한 번은 다녀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타지에서 생활하면서 더 큰 세상을 보고 경험하는 게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거 같다고 생각하고 다른 친구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러 왔다고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 보다는 현지 친구들 혹은 다른 나라 친구들이랑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게 유학생할의 만족도를 더 높이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실력이 부족해도 자신감을 갖고 일단 부딪혀보는 게 시작인 거 같습니다. 물론 유학생할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저는 또 교환학생을 신청할 만큼 유학생할은 꼭 한 번쯤은 도전할만한 일인 거 같습니다.